

건설

건자재 시장 호황기 돌입

2013. 11. 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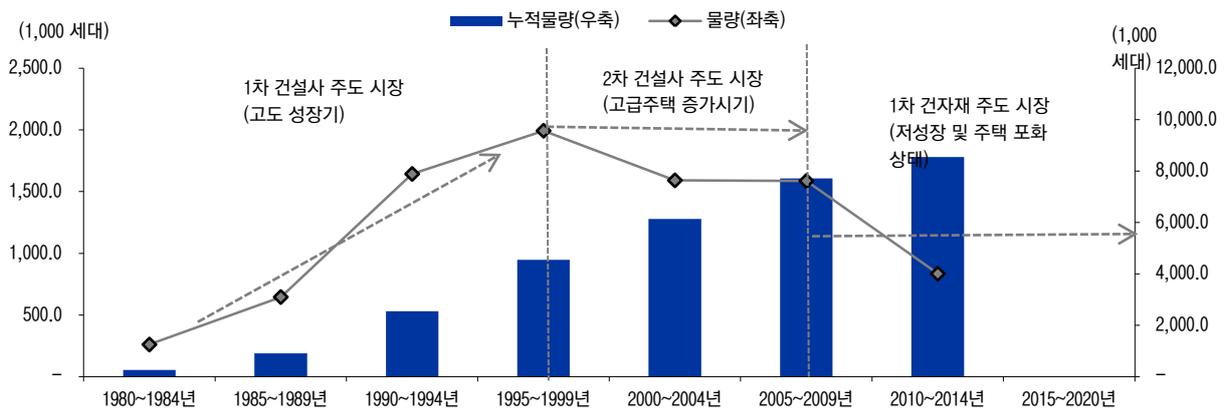
건설/유틸리티
Analyst 박용희
02.3779-8944
yhpark@etrade.co.kr

국내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: 1~2차 건설사 중심시대에서 1차 건자재 시장 중심으로 재편

국내 주택시장은 1차 건설사 주도 시장(고도 성장기), 2차 건설사 주도 시장(고급주택 증가기)를 마무리하고, 리모델링 및 DIY 시장으로 빠른 재편을 앞두고 있다. 신규주택 착공을 통한 건설사 주도에서 인테리어 및 재고주택의 리모델링화 시대를 본격 알고 있다는 판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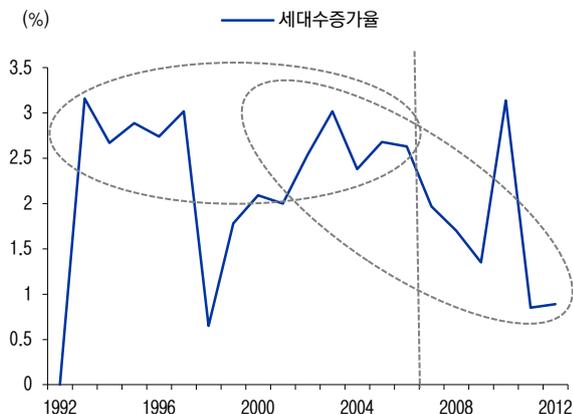
KCC, LG하우시스, 한샘 등의 Top tier 건자재 업체 및 한솔홈데코, 벽산, 삼화페인트, Second Tier 건자재 업체들의 성장은 최소한 202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. 이는 90년대 이후 건설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2020년전까지는 본격적인 재건축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 전망이다기 때문이다.

[그림1] 1~2차 건설 성장기를 뒤로 하고, 이제는 본격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및 DIY 수요 증가기 돌입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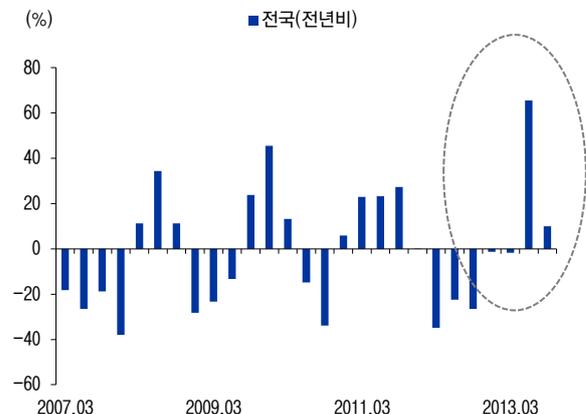
자료: 부동산14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2] 세대수 증가폭이 감소하며, 건설의 양적 성장은 끝난 상황



자료: 부동산14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3] 주택 거래 증가에 대한 해석은 리모델링 성장을 의미



자료: 부동산14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4] 한샘 시가총액 추이



자료: 한샘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5] 삼화페인트 시가총액 추이



자료: 삼화페인트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6] 한솔홈데코 시가총액 추이



자료: 한솔홈데코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[그림7] 벽산 시가총액 추이



자료: 벽산,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박용희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